

退溪學의 實證的 研究方法 모색**

韓 德 雄

I.

이 학술 강연회에서 필자가 발표할 원고를 마련하는 데 허락된 15일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다. 필자는 이 학술 강연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학자들이 많으리라고 짐작하고, 退溪 心學의 몇 가지 주제들 가운데 심리학자로서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강연회의 주제 『새로 보는 退溪學』과 관련지워 본다면, 이 시론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학문적으로 退溪 심학을 심리학의 연구 방법과 연결지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해서 동양학인 退溪 심학에 관해서 동양 철학과 심리학의 협력을 통해서 종합 학문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주제는 필자가 현재 관심을 갖고 새로운 연구에 착수할 시점에 있는 만큼, 이 발표 기회에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退溪 심학이 동양 철학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되지 않고 심리학 분야에서도 성격 및 사회심리학 이론으로서 설득력 있는 이론이 되려면 다음 몇 가지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1) 먼저 退溪 심학의 심리학적 함의를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심리학 이론으로 정리하

* 성균관대 산업심리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89호(1996) 게재논문

(이 논문은 1995년 11월에 행한 퇴계학술상기념 강연요지임)

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졸고, 1993a,b,c,d; 졸저, 1994)는 이 과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여러 학자들의 해석들을 정리해 보고, 필자가 보기에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석을 선별하거나 필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退溪 심학을 설득력 있는 심리학 이론으로 정리하는 일이 필자처럼 역량이 부족한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일인만큼, 앞으로 계속 이 방면에서 노력이 요청된다. (2) 退溪 심학을 심리학 이론으로 정리하고 재창출하는 일에 못지 않게, 退溪 심학에서 심리학적으로 실증적 연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가능한대로 검증이 가능한 형태의 가설 명제로 정리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鄭良殷(1970) 교수가 47론을, 그리고 全炳粹(1978) 교수가 退溪 성리학 전반의 기본 가정들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시도해 본 바 있고, 故 金聖泰(1982, 1989) 교수가 敬 과정에 관한 가설을 제안한 바 있다. 필자(1993a,b,c,d; 1994)는 이 과제와 관련하여 退溪 심학에서 검증이 가능한 가설 명제들을 가려내거나 개발하려고 시도하였다. 물론 실증적으로 검증할 가설을 설정할 때에도 退溪 심학의 형이상학이나 철학의 기본 가정이 일관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자 했다. (3) 退溪 심학 가운데 실증적 연구가 가능한 가설 명제들이 제안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가설들을 실제로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退溪 심학 이론을 실질적으로 타당화하거나 수정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심리학적으로도 더 나은 대안 해석을 제안하고 새로운 실증적 연구 설계를 고안하는 구체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退溪 심학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실증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 조선조 후기 이후 유학자들이 비판한대로 성리학이나 退溪 심학이 공론이 아님을 보일 수 있으며, 현대 심리학을 포함하는 주변 학문 분야에서 退溪 심학을 학술적 정보 소통이 가능한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시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退溪學 혹은

退溪 심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관해서 한계를 지을 필요가 있겠다. 退溪學 일반과 마찬가지로 退溪 심학 역시 철학, 형이상학, 윤리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체계이다. 이 가운데 심리학적으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한 부분은 극히 한정된 일부이다. 退溪學 전체나 退溪 심학 전체를 실증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 시론은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退溪 심학의 가설 명제들을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연구해야 할지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시론에서는 먼저 退溪 심학으로부터 심리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들을 도출할 수 있는 배경을 검토해 보고, 이어서 현 시점에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한 주제들 가운데 敬과 四端七情을 예로 들어서 필자가 정리한 바 있는 몇 가설들을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 발표회에서 필자가 지금까지 다루어 온 내용을 정리하거나 수정하여 발표하기보다, 필자가 장차 다루려는 내용을 제시하고 여러 학자들의 좋은 말씀을 듣는 일이 이 학술 모임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이 초고는 짧은 기간에 마련되어서 거친 형식으로 제시되겠지만, 이 점을 양해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의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II.

이 절에서는 退溪 심학이 심리학적으로 실증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필자가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退溪 심학은 사람의 욕심을 막고 天理를 보전하는 ‘遏人欲, 存天理’를 목표로 삼는다(退溪全書, 上, 答李平叔, 849쪽). 이 목표와의 관계에서 退溪 심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 한 몸을 주재하므로(위 책, 聖學十圖, 心學圖, 208쪽), 사람의 욕심을 버리고 천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천리와 사람의 욕심을 구분하는 일은 마음의 주재에 달

려 있다(위 책, 李宏仲問目, 816쪽). 그런데 마음은 敬이 주재하므로 (위 책, 聖學十圖, 心學圖, 208쪽), 마음을 조절하는 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된다(위 책, 上, 聖學十圖, 大學經, 203쪽; 위 책, 敬齋箴, 210쪽).

退溪 심학이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는 도덕적 인간상을 추구한다는 점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겠다. 달리 말해서 聖學에 비친 退溪 심학은 人欲을 막고 천리를 보전하려는 자기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修養하는 과정을 다룬다. 서양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人欲을 막고 天理를 보전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자기 조절 과정을 다룬다. 그러므로 필자(1993d; 줄저, 1994, 13쪽)는 退溪 심학의 특징을 살려서 도덕적 생활 목표의 심적 자기 조절론이라고 부른 바 있다. 이 명칭에서 도덕적 생활 목표라 함은 退溪 性理學에서 제안된 宇宙論, 形而上學, 人性論 및 倫理觀에 근거를 두는 仁義禮智의 四德과 조화되는 심리와 행동을 실현하는 일로 설명된다. 또한 심적 자기 조절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대로 敬이 주재하는 마음(心)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의 심적 경험과 행동을 목표 상태에 이르도록 자기 조절함을 의미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상에서 요약해 본 내용이 목표로서 추구하는 도덕적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목표 있는 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退溪 심학은 사회 행동 일반의 자기 조절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필자가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연구해 온 주제도 退溪 심학을 일반 사회 행동과 성격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해명하고, 또한 자기 조절 이론으로서 退溪 심학이 지니는 특징을 부각시키는 데 있었다. 필자(줄고, 1993a,b,c,d; 줄저, 1994)가 退溪 심학을 일반적 사회 행동이나 성격 이론 및 자기 조절 이론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비교 논의한 서양 심리학 이론들에는 Freud(1920, 1927)의 정신분석학, Allport(1955)의 특성 이론, Bandura(1986, 1991)의 사회적·인지적 이론, Locke(Locke & Latham, 1990; Locke, Shaw, Saari, & Latham, 1981)의 목표 설정 이론, Carver와

Scheier(1981, 1990)의 제어 이론, Rand(1964)의 의지의 인지적 자기 조절 이론, Snyder(1974, 1979, 1987)의 자기 행동 점검 이론, Schlenker(1984, 1985)의 자기 정체화 이론, Duval과 Wicklund(1972; Wicklund, 1975)의 객관적 자기 인식 이론, Markus(1986, 1989)의 가능한 자기 이론, Higgins(1989)의 자기 차이 이론 등이 포함된다.

서양 심리학에서는 北美 대륙을 중심으로 최근 10여년에 걸쳐서 社會認知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자기 조절 이론들이 크게 발전하였다. 서구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자기 조절 과정의 개념은 자기 개념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합치되는 결과를 가져오려는 심적 및 행동 과정을 지칭한다. 현재까지 발전된 서양의 자기 조절 이론들은 성취 과제의 수행과 도덕적 행동의 수행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 자기 조절 이론에 의해서 모두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Bandura(1989, 1991)와 같은 학자는, 과제 성취 행동과 도덕적 행동에 관련되는 세부 요인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그의 일반 이론에 근거를 두고 도덕적 행동의 자기 조절 과정을 다루는 특수 이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수 이론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제안한 도덕적 행동의 자기 조절 이론은 Bandura(1986)가 사회적·인지적 이론에서 제안한 일반적 자기 조절 과정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서양의 성격이나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는 급진적 행동주의의 영향력이 쇠퇴한 이후, 인간이 지닌 지향성 혹은 의도성, 인지, 동기 및 정서들이 자기 목표의 추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해명하려는 연구들이 크게 증가되었다. 필자(졸저, 1994, 15-19쪽)는 현 시점에서 行動主義의 퇴조 이후 심리학에서 이들 심리적 변인들의 영향을 다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退溪 심학을 서양 이론과 비교하여 특징을 부각시키기가 그 이전보다 용이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어떤 관점이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상관없이, 대체로 심리

학자들은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推計的 검증 규칙에 따라서 각 이론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자기 조절 과정을 다루는 이론들도 검증 가능한 형태로 가설을 진술하고, 실제 연구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 만약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증적 기반을 지니는 이론으로서의 가치는 확립되지 못한다. 따라서 실증해야 할 가설들을 지니는 자기 조절 이론들은 가설을 검증하는 데 적합한 실증적 연구의 패러다임을 개발하는 일이, 독창적이고 검증이 가능한 가설을 도출하는 일에 못지 않게, 이론 발전에 기여하는 필수 요소가 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退溪 심학에서 검증 가능한 가설의 도출이 가능한 이상, 실증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서구에서 자기 조절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기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조절하는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적 변화를 실험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혹은 측정함으로써 이 변인들이 다른 인지, 정서, 동기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성취 목표 혹은 행동 목표를 추구하게 된 조건에서, 이 목표 추구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지속시킨다고 가정된 요인들로서 자기주의 집중이나 실제 수행 결과의 환류 효과가 연구되었다. 물론 개인의 성취 목표가 없거나 목표의 수준이 높지 않은 조건과 비교해서 높은 목표를 설정할 때 노력 수준이 높아지는 지도 연구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낮거나 높은 목표, 자기주의 집중되지 않거나 된 조건, 그리고 행동 수행 결과가 환류되지 않거나 환류된 조건을 달리 실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이 요인들에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려는 동기 수준이나 자기를 평가하는 감정 반응이 가설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지지되는지 검증하게 된다.

III.

退溪 심학에서 필자가 도출한 심적 자기 조절 이론에도 도덕적 행동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 조절하는 과정이 명세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 제안된 개념들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서양 이론에서 제안된 개념과 의미가 유사한 용어들이 많다. 그러나 이 용어들도 실제로는 다양한 해석에 근거를 두고 새로운 조작적 정의를 시도해야만 退溪가 사용한 의미와 근사한 개념으로 실증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이 절에서는 退溪 심학의 핵심 개념인 敬을 중심으로 退溪의 자기 조절 이론이 어떠한 전개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실증적 연구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退溪 심학의 요지를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데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敬은 이른바 聖學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요체이다. 그런데 退溪 자신에 의해서 정리된 바와 같이, 敬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退溪(退溪全書, 1958, 197쪽)의 설명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存養, 窮理, 居敬, 省察, 主一無適 이외에, 이상의 내용을 반복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정의 이외에 退溪가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거나 해설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경의 개념적 속성은 더욱 다양해지기 때문에 핵심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敬은 未發과 已發, 그리고 요소로는 인지, 정서, 행동 요소들을 지니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는 물론이고 문학적으로도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졸저, 1994, 76-96쪽).

그러나 경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고, 정서 및 행동이 本然之性, 理發, 道心, 四端 및 도덕적 행동과 연결된다는 退溪의 가정은 비교적 분명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래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가정하는 유학의 기본 명제는 退溪 심학에서도 공통되므로, 敬 상태에서 이 性善의 특징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증적 관점에서 보면 경 상태에서 처하게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서, 실제로 선

한 사고, 정서 및 행동이 우세하게 나타나는지 입증해 보여야 한다. 이 실증적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리학적으로 우선 착수해야 할 일은 경 과정 혹은 경 상태의 핵심을 정리하여 검증할 가설 명제로 제안하는 데 있다.

경의 심리학적 의의를 국내 심리학계에서 처음으로 연구한 故 金聖泰 교수는 이 방면에서 중요한 시발점을 마련한 바 있다. 金聖泰(1989, 17쪽)는 退溪가 인격 완성을 위한 도심의 형성이나 행동의 통제법으로서 거경 자체를 중시한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로서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한 가지 일에 집중되어 있으며, 행동이 침착하고 상황에 맞는 상태라고 보았다. 그는 이 해석에 근거를 두고 실증적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가설 명제를 제안했다. 높은 수준의 경 상태는 主一無適에서 보는 대로 주의 집중 과정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경 상태에 도달하는 기법들이 성공적으로 작동되면, 객관적 지각과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서 수행의 유효성도 높아진다.

필자가 보기로도 경 상태는 주의 집중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수행의 유효성이 주의 집중 수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조건에서는, 이 가설이 지지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 金聖泰는 이처럼 경의 기능들 가운데 주의 집중 기능에 관심을 기울여서 경의 한 요소인 주의 집중이 이루어진 조건에서 지각의 객관성과 수행의 유효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필자(졸저, 1994, 91-96쪽, 135-151쪽, 158-164쪽)는 退溪 심학에서 경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내용을 분석해 본 바 있다. 필자(졸저, 1994, 91-93쪽)의 이 분석에 따르면 경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적어도 경의 심적 및 행동적 측면(2) × 경의 선행 유발 원인들, 경 상태의 특징 및 경 상태의 후행 결과들(3)에 해당되는 (2) × (3) = 6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退溪의 『聖學十圖』나 편지글 등에서 경과 관련된 선행 요인들, 경 상태의 특징들, 경에 의해서 초래되는 결과들을

정리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성과는 경 상태에 이르거나 이른 후의 심적 및 행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재료를 체계화한 데 불과하다. 이 체계화 작업만으로 경 과정을 거치면서 겪는 주관적 경험이나 외면적으로 표출되는 행동의 발생 경로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미흡하다.

필자는 경이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위의 분석의 틀과 연관지워서, 심리와 행동의 자기 조절 과정에서 기능의 단위에 따라서 敬의 기능을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해 본 바 있다. (1) 존양과 거경으로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선행 유입(feedforward) 효과, (2) 仁義禮智의 四德으로 설명되는 인간의 도리와 조화되는 자기의 심리와 행동 목표의 설정, 즉 하늘이 내린 도리에 맞고 이기적 충동을 제어하는 선한 자기상의 설정, (3) 자기에 주의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설정된 선한 自己像의 목표가 심적으로 특출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기능, (4) 심적으로 특출해진 선한 자기상의 기준에 일치되도록 행동을 이끌어 내는 기능, (5) 성찰을 통해서 주관적 정서 경험이나 사회 행동의 결과를 환류하는 기능, (6)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기능들을 강하게 연결시키는 통합 기능이다. 필자는 이 마지막 기능이 退溪가 강조하고자 했던 “마음(心)이 性과 情을 통괄하고 거느린다”는 心統性情의 개념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退溪 심학의 핵심이 되는 경의 개념을 이처럼 간략히 정리하게 되면 경의 기능에 관하여 심리학적으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기가 용이해진다. 왜냐하면 退溪 심학에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진술된 경의 효과들이 각각 위에서 제시한 어떤 기능 혹은 기능들을 통해서 마음과 행동의 자기 조절에 기여하는지 검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높은 수준의 수행이 목표인 성취 과제에서 자기 조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 기능들로 설명해 보자. 높은 수행 목표를 지닌 성취 과제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경의 주의 집중 기능에 의해서 이 목표가 심리나 행동을 방출하는 기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행을 높

이러는 자기 조절 과정에서 노력을 쏟게 하는 동기적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 말은 성취 과제의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높지 않은 조건에서는 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의 집중의 기능에 의해서 동기가 높아지지 않고, 따라서 수행 수준도 높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달리 말해서 이미 설정된 수행 목표 혹은 기준이거나 주의 집중 가운데 수행 수준에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두 요인들이 동시에 가산적으로 작용하여야만 수행 수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필자가 제안한 이 해석은 金聖泰 교수가 경을 주의의 대상에 대한 주의 집중으로 해석한 바와 다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해석에 따르면 경의 기능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행하는 자기에 주의가 집중되는 데 있으므로, 단지 수행의 대상이 되는 수행 과제에 대한 주의 집중을 강조하는 김교수의 해석과 다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필자는 경이 수행의 대상인 사물에 대한 주의 집중이기보다 자기주의 집중에 가까운 현상이라고 본다. 필자가 경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기주의 집중을 생각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退溪 심학에서는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도덕적 심성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일이 관심사이다. 유학의 기본 가정으로서 인간이 생래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관점은 退溪 심학에서도 동일하다. 달리 말해서 退溪 심학에서도 인간이 생래적으로 지니고 태어나지만 본질적으로 발현력이 약한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과 행동을 자기 실현하는 일이 목표이며 과제이다. 退溪 심학이나 유학에서 인간성이 선하며 인간이 이의 실현을 추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흔히 명시적으로 반복해서 진술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가정되는, 이 목표 설정의 효과를 간과하기 쉽다. 또한 경 과정을 통해서 주의가 자기에게 집중되면 생래적으로 지닌 이 선한 기준이 특출해져서 자신의 심리와 행동이 이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대부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으로 인해서 자기주의 집중이 강해지면,

자기의 목표 상태로서 추구하는 선한 기준에 합치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필자가 진술한 이 가설 명제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다. 선한 사회적 자기 행동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도록 한 조건에서 경 과정을 통해서 주의가 자기에게 집중될 때, 그렇지 않은 조건보다, 선한 기준과 일치된 행동이 우세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할 수 있다.

경의 또 다른 기능으로 필자가 제안한 성찰의 효과도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즉, 도덕적 자기 행동의 목표가 설정되고 이 목표에 따라서 행동이 수행된 후, 자기 행동과 결과를 자기 환류하는 성찰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가 설정한 행동의 목표를 기준으로 자기 행동을 평가하며 자기 처벌 혹은 자기 보강이 나타나는지 검증할 수 있다.

退溪의 경 과정이 다른 서구의 자기 조절 이론들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경 과정이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전체 과정을 연결짓는다고 본 데 있다. 존양부터 환류에 이르는 경을 통한 자기 조절의 전 과정은, 필요에 따라서 몇 과정을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退溪의 설명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마음과 행동 가운데 어디서부터 심적 자기 조절을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상의 단위 과정별 설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경 과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시론으로 제시한 경의 다양한 기능들은 사회 심리 실험실과 일상 생활의 현장 실험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실험실 실험을 수행하게 되면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통제된 조건에서 경의 하위 기능들을 학습할 때 자기 행동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현장 실험을 통해서도 현실 상황에서 경의 하위 과정들을 학습하여 각각 우세하게 작동시킨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지 검증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의 현장 실험은 경에 관한 가설의 외적 타당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절에서는 경 과정의 핵심적 요소를 심리학적 개념으로 해석하여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설정하면 실증적 연구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이 시론에서 제안한 전체 과정을 연결짓게 되면, 심리 치료, 건강 행동은 물론, 조직 행동의 자기 조절 과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적 골격이 마련된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가 이 절에서 강조하고자 한 점은 하나의 검증 가능한 가설이 제안되어야 이 가설과의 관계에서 退溪가 제안한 경 과정에 더욱 접근된 대안적 가설들을 발전시키는 구체적 계기가 마련된다는 데 있다.

IV.

이 절에서는 退溪 심학을 실증적으로 다루기 위한 또 다른 주제로서 四端七情에 관한 몇 가지 연구 과제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원래 성리학에서 情은 體用 가운데 용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므로, 협의의 정서만이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요소들이 이미 發한 상태를 지칭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退溪(退溪全書, 上, 答金而精, 683-684쪽)는 情에 인지적 및 동기적 요소들인 念·慮·思·志·意도 포함된다고 본다. 성리학에서 정의 개념을 체용론의 용으로 보는 바와 유사하게 서양 심리학자들 가운데도 정서의 개념을 감정의 주관적 경험이나 행동적 요소에 더해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면 Averill(1990; 졸저, 1994, p.128 참조)은 정서가 표출 반응뿐만 아니라 일화적 성향도 반영하므로 인지적 측면과 사회적 규칙으로 이루어진 정서적 도식도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필자(1994, p. 128)가 정리해 보면 정서는 생리적 작용,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나 명명 및 행동적 표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에서는 정의 개

념에 포함되는 여러 단면을 모두 동시에 다루는 방법이 비효과적일 수도 있다. 우선 여러 단면들 가운데 하나인 주관적 정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는 방법도 사단칠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기에는 좋은 방략이다.

退溪 심학에서 四·七論의 핵심은 四·七을 각각 理氣와 연결짓는 데 있다. 이 기본 가설을 잠시 잊혀놓더라도, 退溪는 四가 순선이며 七은 선악이 정해지지 않아서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退溪 이론에서는 四端과 七情이 선악 면에서 서로 구별된다는 가설을 제안한다. 이는 退溪가 제안하여 奇高峯이나 李相殷(1973)이 대설(對說)이라고 부른 四·七의 이원 분류 가설이다. 이 가설과 관련하여 해명해야 할 과제는 일반적으로 四·七이 각각 선악으로 구분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거나 四·七이 각각 선악으로 구분될 수 있는 특수 조건을 알아내는 일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사단과 칠정 정서가 각각 우세하게 경험되도록 만든 선행 상황이나 사건들을 조사해서, 각각 사단 칠정을 일으키는 데 원형이 되는 선행 상황이나 사건들이 선악의 기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할 수 있다. 둘째, 대인관계 유형별로 사단과 칠정을 각각 우세하게 경험하는 조건에서 사덕을 기준으로 각각 좋거나 나쁜 관계가 형성되거나 유지된다고 판단되는지 검증할 수 있다. 셋째, 인의예지 사덕의 기준에서 볼 때 각각 선하거나 악한 행동적 사건들에 의해서 어떤 정서 경험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냄으로써, 선한 조건에서 사단이 우세하고 반면 악하거나 선악의 구분을 하지 않은 행동 조건에서 칠정 정서의 경험이 우세한지 검증할 수도 있다.

四·七 정서론은 對說과 因說을 검증하는 이외에도 여러 실증적 연구 주제들을 지닌다. 먼저 仁이 사덕을 관통한다는 '仁貫四德'의 관점에서 보면, 인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한 조건에서 의, 예, 지의 기준이 작용한 행동적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선하다고 판단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유학에서 四·七 정서를 선악 차원

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서구의 실증적 연구에서 자주 보고된 쾌-불쾌 차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보다 더 큰 설명 변량을 차지하는지도 검증할 수 있다.

한편, 사단 정서에는 특히 羞惡에서 보는 대로 자기가 대상인 자기 정서와 타인이 대상인 대인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 朱熹(1965, 經書, 孟子, 公孫丑章句上, 516쪽)의 해석에 따르면 羞는 자기에 대한 정서이며 惡는 타인에 대한 정서이다. 이와 유사하게 惻隱, 辭讓, 是非에도 자기 및 타인 대상의 정서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四·七 정서를 자기-타인 관련 정서의 축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사단과 칠정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연구할 수 있다.

四·七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退溪의 이원 분류와 달리, 栗谷(1958, 栗谷全書, 答成浩原, 199-200쪽)은 칠정이 다양한 정서들을 대표하기 위한 명칭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칠정이 모든 정서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사단 역시 이 칠정에 포함된다'(七包四)고 주장한 바 있다. 율곡은 구체적으로 측은은 기쁨(喜), 슬픔(哀), 사랑(愛), 욕망(欲)에 포함되며, 수오는 노함(怒), 혐오(惡), 시비는 기쁨(喜), 노함(怒), 사랑(愛), 두려움(懼), 그리고 사양은 두려움(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간략히 말해서 율곡은 사단이 칠정으로 구성되는 복합 정서라고 본다. 사단과 칠정이 退溪의 이론대로 이원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 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칠정이 사단을 포괄한다는(七包四) 율곡의 가설도 退溪 가설과 대비시켜서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退溪 四·七론의 핵심 과제는, 그가 四書 중 孟子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사단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학에서 이 사단은 각각 四德의 기준이 심적으로 우세한 조건에서 경험된다고 가정되었다. 그런데 실증적 관점에서 보면 사덕과 사단이 각각 상응되는지 이 상응성의 가정 자체가 입증해야 할 가설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의예지 사덕의 기준 각각에 합치되거나 합치되지 못한 자기나 타인의 행동에 당면해서, 이 사덕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仁貫四德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측은, 수오, 사양 및 시비의 정서가 우세하게 경험되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

V.

필자는 이 시론을 통해서 退溪 심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退溪 심학 가운데 실증적 연구가 가능한 몇 가지 가설들을 개발하고 이 가설들을 검증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退溪 심학에서 심리학적으로 실증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시도처럼 실증적 연구를 위한 시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현 시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차 실증 연구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어 수행되더라도, 退溪 심학 전체가 서구식 심리학 이론으로 한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실증 가능한 이론으로 환원될 수 없다.

필자가 退溪 심학 연구의 한 방도로서 실증적 연구의 기반을 모색하는 이유는 실증적 접근법이 한국 심리학과 退溪 심학 두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심리학계의 풍토를 고려할 때 한국 사상에 뿌리 박은 심리학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실증적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 칩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심리학계는 현재까지 어떠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마련된 학술적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실제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거나 배척될 수 없는 이론은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退溪 심학에 관해서 검증이 가능한 심리학적 가설들을 개발하는 일만 하더라도 심리학자와 退溪學자가 상호 협력하여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제이다.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가설들을 개발하는 과제에 못지 않게 어려운 과제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험이나 조사 연구의 설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아마도 이 단계에서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당사자나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학자들이 각기 끈질기게 노력하고 끈기 있게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退溪 심학을 현대 심리학으로 복원하여 동서양에서 모두 설득력을 지닐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표에서 보면 退溪 심학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목표에 근접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이론의 개발과 실증적 연구가 상호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비록 실증적 연구의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지닌 학자라도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退溪 심학의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여러 개념들이 명료화되는 장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시론에서 예로 들어서 단편적으로 살펴본 敬과 四端七情의 연구 역시 이 상호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현대 시점에서도 설득력 있는 심리학 이론으로 창출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된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적어도 한 두 소주제만이라도 확고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退溪學과 심리학 두 분야 모두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退溪學 분야로서는 일부 극단적 학자들의 주장처럼 退溪의 심학 이론이 심리학적으로 공론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退溪學의 접근법과 달리 退溪 심학의 가설대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새로운 연구 영역의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심리학으로서는 한국 철학에 뿌리를 둔 한국 심리학의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양 심리학이 서양 사상이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이와 조화되는 심리학을 발전시킨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나 동양에서 심리학은 서양의 심리학을 직수입함으로써 심리학의 틀을 짜 왔다. 본격적으로 한국 혹은 동양의 철학이나 사상에 근거를 두는 한국 심리학의 연구는 아직도 출발

점에 서 있다. 앞으로 한국 심리학은, 특히 성격이나 사회 심리 분야는 물론 여러 응용 분야에서, 더 넓은 지평을 획득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자양분을 획득하려는 새로운 도전도 감당해야 한다.